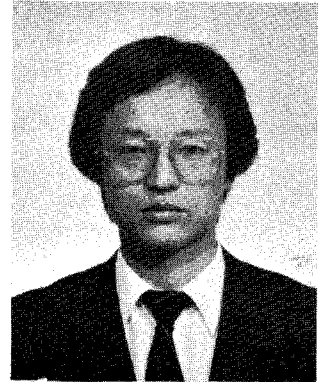


# 세계속의 한국양계를 생각해야 한다



정 기 홍

마니육종 육종기획부

## 1. 한국양계의 전망은 밝으나

국민소득의 급격한 향상은 전체 육류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육류중에서도 고단백 저칼로리인 닭고기의 소비증가는 더욱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쇠고기의 경쟁력이 광대한 초지와 값싼 조사료에 의해 생산되는 도입 쇠고기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떨어지고 도입한 원료사료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면에서 닭고기의 생산이 돼지고기의 생산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닭고기의 소비비중이 크게 신장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닭고기의 소비가 돼지고기 소비의 절반도 안되는 것은 문제성이 있으며 닭고기 소비확대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양계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닭고기나 계란의 경쟁력은 국내에서 소비신장의 문제만이 아니며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수입자유화의 물결에서 양계업체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생각되어야 한다. 수입자유화의 조류는 한국의 위치가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추세와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으며, 배합사료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생각되는 양계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의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양계의 현위치를 알고 개선할 점과 살려나갈 점을 가려 국제화시대에서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모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본다.

## 2. 생산성의 제고가 관건

국내의 능력점정성적은 똑같은 품종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능력과 정성적에 비해 떨어지며 사육농가의 수준에서는 10%이상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원인은 첫째로 생산기술의 낙후와, 둘째로 질병에 의한 피해, 셋째로 생산 및 유통체계의 문제로 보여진다.

생산기술은 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종계의 수입과 같이 제시되는 외국의 사양지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기후풍토와 환경이 외국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종계의 케이지사육과 인공수정의 실용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독자적인 기술의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질병의 문제는 높은 사육밀도와 방역체계의 미흡으로 생산성 저하와 방역비의 과중한 부담의 이중고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 높은 사육밀도의 문제는 국토면적의 제약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할지라도 올인-올아웃 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위험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방역체계는 우선적으로 외래질병의 차단을 위한 장치와 범국가적으로 주요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생산 및 유통체계는 통합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대기업에 의한 계열화가 아니더라도 생산자 단체의 주도에 의한 계약생산 및 공급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양계업계는 화합과 단결의 분위기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촉매의 작용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계열화 생산은 경영의 안정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성의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크고, 미국의 계열화 체계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생산성 향상의 주역이 되어 왔다.

양계산물의 생산성 향상은 다른 육류에 비해 혁신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계산물 수요의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하고 확대시키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관건은 바로 생산성의 제고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3. 국내 자급율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닭고기와 계란의 생산원가 중에서 사료비의 비중은 75%정도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료사료의 85%정도를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계는 60%정도를 G.P.S나 P.S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백신 및 약품도 수입비중이 더 높고 부화기 등 양계시설 및 기구류의 수입도 적지 않다. 1984년도 축산업의 총생산액에서 부가가치액의 비율은 34%로써(자료: 한국은행) 부가가치가 높은 기타 농림수산업보다는 제조업 등 중간

가공에 가까운 수치로 이는 축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가 반영된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부가가치가 작은 산업은 체질적으로 허약하며 완전한 수입개방을 한다면 그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오늘의 한국양계는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와 필요하며, 양계업계 스스로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발전시켜 그 체질을 튼튼히 만들어야 하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기술집약적인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육종 및 부화분야는 바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써 네덜란드의 종계사업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이 분야는 전체 양계기술을 선도하여 그 파급효과가 크고 백신 및 약품이나 양계설비의 흐름을 동반한다. 특히 한국양계를 기초부터 튼튼히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외래질병의 차단에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백신 및 약품분야는 먼저 자급화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기술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양계설비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전체분야에서 자급화율을 높이고 수출의 조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에서 거의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는 계육 및 계란의 가공 및 유통은 국내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분야이자 가장 큰 부분으로써 외국에 양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입맛을 맞추는 데까지 외국에 의존하는 자세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낙관적인 견해로 한국양계의 문제점은 원료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것 뿐이라고 본다. 기타 분야는 우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한국사람이 명실공히 우리 양계인의 힘과 기술로 생산된 국산 닭고기와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젊은 양계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